

믿음이 뭐니? 2 “의심이 너무 많아요”

마음열기

강한 의심이 들 때

친구가 갑자기 칭찬할 때 (“뭔가.... 부탁할 게 있지?”)
아내가 갑자기 “자기야 사랑해”라고 말할 때 (“내가 뭐 잘못했나?”)
직장 상사가 “오늘은 야근이 없어”라고 할 때 (“그 말... 녹음해도 되죠?”)
음식점 사장님의 ‘우리 집은 MSG 안 써요~’ 할 때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자장면 배달 ‘5분이면 도착해요’ 할 때 (“그 5분은 지구 시간이 맞나?”)
엄마가 “설거지 좀 도와줘~ 금방 끝나~” 할 때 (“그 ‘금방’이 내 인생에서 제일 길어”)
친구가 “진짜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할 때 (“그 말은 곧, ‘내일 전교가 알게 될 거야’라는 뜻이지?”)

☞ 위의 내용들 중 강하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 잘못된 의심으로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아래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이 세상에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나눔

1. 아래 질문들에 대해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당신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 믿음의 열등감을 느낄 때는?
-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의심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말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마태복음 28:16-20

16 열한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18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고전 13:12-13 (메시지)

12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 한가운데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날이 맑게 게고, 태양이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그분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13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 마태복음 28:16-20에서 제자들은 어떤 상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17절)

☞ 마태복음 28:16-20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이는 제자들에게 어떤 분부를 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19-20절)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의 약속	

▣ 고린도전서 13:12-13 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2 절)

▣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의심이나 질문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나요?

▣ “믿음은 의심이 없을 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 요구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 나의 삶 속에서 ‘확실하지 않지만 계속 신뢰하며 행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고린도전서 본문은 희미하고, 의심스럽고, 여전히 질문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3 절)



적용과 결단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의심이 없는 상태, 확신이 가득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을 때 스스로를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고, 열등감과 패배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질문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유다서 1:22).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정된 환경과 지식 속에서 살아가기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많고, 고민은 더 많으며, 의심은 더더욱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결혼도, 직업도, 친구 사귐도, 아이를 갖는 일도 결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의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며, 믿음과 의심은 서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의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이 존재할 때 요구되는 것입니다. 확실함과 지식이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세상의 모든 경험 속에서 거울처럼 희미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직접 볼 때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의문과 불확실 속에서도, 3년 동안 함께한 스승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사라, 엘리야, 침례 요한 등 의심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아는 것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확실하지 않고 희미하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의심 속에서도 예배했고, 섬겼으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의심을 없애는 것이 믿음이라고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믿음의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보세요. 의심이 있어도, 불확실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